

周邊情勢變化에 따른
北韓의 對外關係 展望

1983

國土統一院

要 約 文

3611
349.11

1. 問題意識

- 韓半島 統一問題는 물론 民族內部問題이나, 그 分斷의 歷史가 國際政治的 狀況과 密接하게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國際環境을 전혀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임.
- 그러나, 韓半島 統一問題와 理解關係를 갖고 있는 周邊4強國들의 政策은 韓半島와 關聯한 그들의 國家利益의 方向이 多元的으로 相反되는 境遇가 많아서, 유럽의 이원적 對立 즉,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間의 兩者對立 現象과는 달리, 多元的으로 複合衝突을 하고 있는 狀況임.
- 最近, 所謂 “北方3角關係”에 있는 中·蘇·北韓은 共通的으로 政權의 世代交替라는 과도기적 狀況에 處해 있어, 과도적 狀況 그 自體가 큰 變化를 暗示하고 있는바, 韓國側의 進取的인 統一政策을 推進하기 爲해서는, 이러한 周邊 變化의 흐름에 對한 大略的 조망이 必要할 것임.

2.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樣相

- 中共은 對內的으로 實用主義路線을 追求하는 鄧小平體制가 完全히 자리를 굳히면서 政權의 世代交體와 社會開放化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獨立自主 外交論”에 立脚하여 이데올로기의 名分보다는 實利爲主로 對外關係를 정립해 나가되, 美·日과의 協調를 통해 極東地域의 現狀維持를 圖謀하고 있으며, 蘇聯과는 不必要

한 紛爭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음. 北韓과는 表面上 密着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適當한 距離를 두면서 北韓의 對蘇傾斜를 일단 豫防하되, 韓半島에서의 紛爭再發을 원치않고 있음.

- 蘇聯은 안드로포프 登場以後 아직도 政權의 基盤이 確立되지 못한 가운데, 政權交體(或은 政權의 世代交替)의 과도기적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기동안 周邊 隣接國들로부터의 緊張造成은 원치않으며, 蘇聯內部的 軍部勢力이 比重있게 影響力을 가질 境遇에는 對美 戰略的 강경路線을 취할 것이나, 中共과는 不必要한 紛爭을 誘發하지 않을 것임. 또한 最近 蘇聯의 對아시아 軍事戰略의 據點이 北韓中心으로부터 脫皮하여 多元化하고 있는 趨勢를 보이는바, 北韓에 對한 戰略的 重要性은 보다 減少될 것이 豫想됨.
- 美國은 蘇聯의 政權交替過程을 예의 주시하면서, 對蘇 “힘의 優位” 確保를 爲한 安保·軍事戰略을 강경하게 推進하되, 美國·中共關係 再調整과 中·蘇 緊張緩和에 따라 不可避하게 日本과의 安保紐帶를 強化해 나갈 것임. 한편,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日本·中共 等과 協調하여 “交叉承認”의 方向으로 努力할 것임.
- 日本은 美國의 太平洋 安保協調 要求에 適切하게 應하면서, 有事時 蘇聯의 軍事威脅에 對備하는 自衛力 增強을 서서히 피하되, 中共 및 蘇聯과의 政治的·經濟的 關係는 繼續 發展시키면서,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爲해서는 美·中共等과 協力하여 主導的으로 “交叉承認”을 推進하고자 努力하고 있음.

3.北韓의 對中·蘇關係 展望

- 最近 中共·北韓間의 最高指導者 相互訪問等 政治的 交流의 增大現狀은 兩者關係를 보다 緊密化하고 있는 分명한 徵候이며,
 - 中共은 캄보디아, 베트남, 아프간등 隣接國들이 이미 親蘇化된 狀況에서, 北韓만은 自己勢力圈안에 묶어두어야 할 戰略的 必要성과
 - 北韓은 政權後繼問題, 經濟問題, 對外關係問題等 懸案問題들의 打開을 爲해서는 당분간 政治權力의 향방이 不確實하고 항상 두려운 存在인 蘇聯側보다는 이미 變化의 方向이 定着된 確實한 政權인 中共의 鄧小平 및 그 後繼體制에게 당분간 接近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中共·北韓關係는 解決해야할 複雜한 問題들이 가로놓여 있는 바,
 - 韓半島 統一問題, 韓半島에서의 紛爭, 美國에 對한 認識, 中共의 對美·日 關係維持等の 問題에 對해 北韓과 中共이 서로 理解關係가 다르며,
 - 中共의 實用主義路線 追求, 毛澤東 偶像批判, 새로운 世界觀等은 北韓의 現路線과는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蘇聯은 北韓地域에 對한 軍事 戰略上的 比重이 比較的 減少되어 가고 있고, 더구나 韓半島上的 紛爭誘發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對北韓 軍事的 支援이나, 政治的 支援은 相當期間동안 留保될 可能性이 많은데, 다만 中共·北韓의 完全密着으로 因한 對蘇聯 威脅에 對해서는 “韓國 카드”를 活用하는等, 徹底하게 견제하고자 努力할 것

임.

(中共 역시 接近해오는 北韓을 消極的인 姿勢로나마 일단 받아들여
되, 北韓의 親蘇化를 防止하는 線에서 制限된 關係를 維持할 것임)

- 이렇게 된다면, 결국 北韓은 中·蘇 國家中 어느쪽도 확고하게 自身
의 代父가 될 수 없다는 現實에 直面, 閉鎖政策으로 因한 國際社會
에서의 孤立을 打開하고, 生存의 方向을 찾기 爲해서는 周邊國으로부터
더 加重되어오는 “交叉承認”方式을 통한 “均衡속에서의 共存論理”
를 考慮해 볼 可能性도 있음.

(물론, 金正日 後繼體제의 性格如何에 左右될 것이나, 만일 그렇다면
北韓은 “交叉承認”方案을 “聯邦制”의 論理속에서 용해시켜 合理化
할 수 있는 方法을 構想할지도 모름)

4. 對處方案

- 韓國側은 이러한 周邊狀況으로 誘導하기 爲해서는, 中·蘇와 經濟, 文
化等の 交流를 통해 등거리적 關係改善의 方向으로 政策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考慮해야 할 重要한 포인트는 韓國이
自主的 立場에 있음을 분명히 理解시키고, 中·蘇의 國家利益을 決定
的으로 沮害할 意思가 없음을 먼저 認識시켜야 할 것임.

目 次

1. 80 年代의 中共과 韓半島	7
2. 對中共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딜레마	13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22
4. 對蘇聯 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딜레마	27
5. 結 論	37
가. 周邊情勢의 變化樣相	37
나. 北韓의 對中·蘇 關係 展望	39
다. 對處方案	41

1. 80年代의 中共과 韓半島

가. 概 觀

- 中共이 韓半島에 對하여 追求하는 두가지 政策目的은
첫째, 北韓과의 積極的인 關係 強化를 通해 蘇聯의 役割을 排除시
킴으로써 蘇聯의 對極東 膨脹主義 路線을 견제하고 中共自體
의 安保上의 利益을 피하는 것과

둘째,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을 防止하는 것임.
- 그중에서 後者の 경우 北韓의 主要 政策目標(韓半島 赤化統一)와
는 相反되기 때문에 中共은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 지나치게 積
極的인 態度를 취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消極的인 일 수도 없는 立
場에 있음.
- 1980年代에는 이러한 安保的 狀況條件들이 政治·經濟的 條件들과
相互 關聯되면서, 더욱 複雜한 樣相을 띠게 될 것임.
 - 中共은 東南아시아地域의 資本主義 國家들의 產業經濟體制와의 紐帶 없
이는 80年代와 90年代의 巨大한 經濟的 目標을 達成할 수 없
으므로 日本·韓國을 비롯한 周邊 非共產國家들과의 敵對 關係를
원치않고 있으며,
 - 또한 이러한 經濟的 必要性으로 말미암아 政治的 關係에 매우
愼重한 選擇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예를들면 서울 開催
豫定인 1986年 아시안게임, 88 올림픽等 國際 行事的 參加問
題와 關聯하여 中共은 選擇의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 豫想됨.

- 中共이 이러한 國際的 行事に 參加하는 境遇, 이것은 北韓의 憤怒를 사게될 것이 분명한데도 不拘하고, 中共은 東아시아 地域의 政治舞臺에서 積極的인 參加國으로 浮刻되기를 切實히 願하고 있음.
- 美·中共, 日本·中共 關係 또한 이러한 中共의 立場을 더욱 複雜하게 만들고 있는데,
- 最近 緊張된 美·蘇關係와 장차 日本의 東北亞에서의 政治的·軍事的 役割에 對한 中共의 不安等, 東아시아에서의 對決的 雰圍氣는 中共의 利益에 相當한 威脅要素로 登場할 것임.
- 따라서 “全方位外交”를 標榜하고 있는 現在의 鄧小平體制가 繼續 執權하고 있는한, 中共은 美國·日本·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지극히 타산적인 實利主義的 外交政策을 展開해 나갈 것임.
-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 中共의 딜레마는
 - 北韓과의 關係를 損傷시킬 수 없다는 것과,
 - 對北韓 關係를 지나치게 重視하는 境遇, 重要한 政治的인 機會를 놓치게 되거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問題에 봉착할 可能性이 높다는 것임.
- 결국 80年代의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은 中共의 國內 政策方向 및 아시아에서의 全盤的인 政治的·戰略的 事態發展과 關聯된 中共의 利益·損失·危險의 實利的 均衡點에서 決定될 것임.

나.北韓·中共 關係

- 不確實성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고, 그 自體 限界성이 露出되고는 있지만, 現在 中共·北韓 關係는 1960年代 中盤以來로 最高 絕頂에 達해 있음.
- 1982年 4月 鄧小平과 胡耀邦의 平壤訪問, 同年 9月 金日成의 北京訪問을 契機로 兩側은 서로 相對方的 對內外 政策 및 經濟政策을 支持하게 되었고,
- 1983年에 들어와 5月 下旬에는 中共外相 吳學謙이 平壤을 訪問하고, 6月 초순에는 金正日이 北京을 訪問하는等, 中共·北韓關係는 政治的 接觸活動이 顯著하게 增加하는 現象을 보여왔음.
- 이에 따라 中共은 金正日의 政權世襲을 認定하고, 對北韓 軍事援助를 再開하여 20臺의 A - 5 戰鬥機와 中共製 미그 21 機를 北韓에 提供했으며 韓國과의 非公式的 貿易去來를 크게 減縮시켰고,
- 北韓은 中共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의 結果를 認定하고, 鄧小平體制의 수정주의적인 國內政策 및 經濟改革政策을 支持했음.
- 또한 中共은 1981年과 82年 美國과의 關係가 急激히 惡化됨에 따라, 美軍의 韓國駐屯 및 ทัพ스피리트 '83 合同 軍事訓練을 비롯한 美國과 東北亞 軍事政策을 非難함으로써 北韓의 종전 主張을 擁護해 주었고,
- 北韓이 南韓에 對한 挑發을 敢行할 의향이 추호도 없음을 機會 있을 때마다 西方側에 確信시키고 있음.

- 中共과北韓은 서로가 서로를 必要로 하는 立場에서 現在의 兩者關係에 滿足하고 있는바,
 - 中共은北韓을 가장 가깝고 重要的 友邦으로 생각하고 對北韓關係를 重要視하고 있는데, 이는北韓과의關係가 惡化될 境遇,北韓이中共의 勢力權에서 벗어나 蘇聯쪽에 기울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며,
 - 또한北韓은中共과 密接한關係를 維持함으로써 蘇聯의 壓力과 威脅에 對應할 수 있고, 國際的 影響力을 提高시킬 수 있는 것임.
(一例로,中共이 非同盟運動에 對한 直接介入을 回避하게 되므로서,北韓은 한때中共이 擔當했던 役割을 繼承하면서, 國際的 地位를 強化하려 하고 있음)
 - 물론,中共은北韓이 결코 蘇聯과 緊密한關係를 맺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北韓은 이러한中共의 우려를 “蘇聯 카드”로 利用할 것임.

다. 中共·北韓關係 展望

- 北韓과中共은 現在의 兩者關係에 滿足하면서, 雙務關係 發展을 爲해 努力하고 있으나,
 - 對北韓關係에 있어서의中共의 利益이 東北亞에서의中共의 政策目的과 相衝되는 경우, 兩者關係는 變化될 수 있으며,
 - 中共의 外交政策에 있어서中共의 對北韓政策이 獨立變數인지, 아

다면 앞으로의 中共의 政策方向을 決定하는 다른 變數의 影響을 받는 종속변수인지에 따라 兩者 關係는 새 樣相으로 再定立될 可能性이 있음.

○ 現在의 中共·北韓關係를 損傷시킬 可能性이 있는 네가지 側面을 展望해 보면,

- 첫째, 金日成이 死亡한 後 北韓 內部指導體制가 混亂에 빠질 可能性을 들 수 있는데, 金日成에 對한 反對勢力이 現指導體制에 存在하고 있는바, 金日成이 構築한 金正日 政權世襲을 爲한 裝置가 金日成 死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없고, 더구나 金正日의 登場時 蘇聯의 對北韓 尤화공세를 豫測할 수 있는데, 이는 中共이 가장 關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蘇聯이 現在 中共의 能力으로는 거의 不可能한 몇가지 分野에 對해 資本과 技術援助를 提供하고, 새로운 武器(주로 空軍力)를 供給하여 北韓이 蘇聯쪽으로 급선회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둘째, 韓國이 不安定해질 경우 北韓이 挑發을 政行할 可能性이 있는데, 中共은 北韓이 武力挑發을 해서, 韓半島의 現象을 打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北韓은 韓國의 不安定을 武力統一의 與件이 성숙한 것으로 判斷할 可能性이 있음.
- 셋째, 中共·美國關係가 好轉되어, 北韓에 對한 中共의 支持가 덜 必要하게 될 可能性. 즉, 1970 年代 후반, 中共은 北韓의 長期的 政策目的을 支持하는 편보다는,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韓半島의 長期的 安定을 維持할 수 있다고 믿고, 北韓의 政策에 對한 公式的 支持를 弱화시킨 나머지 몇년 前의 中共·

北韓關係가 緊張되었던 적이 있음.

- 네째, 中共이 4大 現代化路線을 推進하는 동안, 不可避하게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非共產國家들과의 安定된 友好關係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이것에 대해 現在보다 더 높은 政策優先權을 賦與할 可能性이 있음. 1980年代初 韓國·中共間의 非公式交易關係가 이러한 可能性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非共產國家와의 關係改善이 中共의 長期的인 經濟·技術的 發展을 가져올 경우, 中共의 非共產國家와의 交流를 통한 現代化 推進이 安保問題보다 더 重要한 比重을 차지할 可能性이 크고, 또한 中共의 4大 現代化 路線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平和的인 外部環境”이 確保되어야 하는바, 결국 中共은 長期的인 東北亞政策 樹立에 있어서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可能性이 있는 것임.

2. 對中共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딜레마

가. 中·蘇 紛爭

○ 中·蘇紛爭은 北韓에 對해 두가지 重要的 影響을 미치고 있는 바,

- 첫째, 여러가지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要因을 考慮할 때 北韓은 共產強大國中 어느 하나로부터도 離脫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中·蘇 둘다 同時에 友好關係를 持續시키는 일도 어렵기 때문에, 北韓의 對外關係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選擇을 強要해 오고 있음.

즉, 1960年代 中·蘇紛爭이 시작된 以來로 北韓은 中·蘇 어느 한쪽에도 지나치게 依存하지 않고 또한 어느쪽으로부터도 離脫되지 않으면서, 中·蘇兩國에 對한 均衡화된 關係를 維持하려고 努力해 왔으나, 中·蘇紛爭이 繼續되는 限, 北韓은 兩側으로부터 壓力을 받을 것이며, 中共과 蘇聯 어느 한쪽을 選擇해야 할 것임.

- 둘째, 中·蘇紛爭은 北韓으로 하여금 두 共產國의 競爭을 利用 北韓의 利益을 增大시키는 機會를 提供해 왔음. 中共에게 있어서는 韓半島가 만주의 出入口인 同時에, 蘇聯의 東北亞進出을 封鎖할 수 있는 緩衝地域이고,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韓半島가 中共包圍戰略 및 太

平洋地域에로의 軍事力膨脹進出을 위한 重要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中·蘇 어느쪽도 北韓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는 點을 北韓은 認識하고, 中·蘇紛爭을 그들에게 最大限 有利하도록 利用해 왔음.

- 그러나 中·蘇關係가 暫定協定을 통한 制限된 '緊張緩和'로 나아갈 可能性은 있으나, 窮極的으로 진정한 中·蘇和解展望은 지극히 어렵다는 點을 勘案할 때, 아시아地域에서 그들의 影響力을 增大하기 爲한 中·蘇間의 競爭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곧 北韓을 자기勢力圈에 끌어들이기 위한 競爭으로 연결되어, 결국 北韓에 對한 中·蘇의 壓力은 增大될 것임.

나. 經濟政策

- 中共의 現在 推進中인 實用主義 經濟政策은 北韓이 堅持해 온 스탈린主義 經濟政策과는 커다란 對照를 이루고 있음.
- 1950年代와 1960年代에 中共과 北韓은 類似한 經濟開發政策을 選擇했던 바, 中共·北韓은 모두 經濟的 後進性 克服과 重工業建設에 優先權을 두었으며, 北韓의 農產業政策은 中共의 人民公社體制 또는 大躍進運動과 매우 흡사하였음.
- 그러나, 現在 中共은 經濟體制를 地方分權體制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今世紀末까지 “經濟現代化”를 達成하기 爲해 西方 工業先進國으로부터 莫大한 量의 物資, 技術 및 借款

展開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金日成·金正日の 偶像化를 中斷할 수도 없는 立場에 있음.

라. 美軍 撤收 問題

- 中共은 美軍의 韓國駐屯이 金日成의 軍事冒險을 抑制시키고, 蘇聯의 아시아 進出을 封鎖하기 때문에, 美軍撤收에 대해 否定的 態度를 取하고 있는 바,
 - 中共은 蘇聯의 아시아·太平洋地域 進出을 封鎖해야 하기 때문에 美軍의 韓國과 日本駐屯보다는 오히려 아시아에서의 蘇聯軍事力 膨脹을 훨씬 더 염려하고 있으며,
 - 美軍이 韓半島에서 撤收하여 東北亞 勢力均衡에 차질이 생길 경우, 蘇聯과 北韓의 軍事的 冒險을 유발시킬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中共은 最小限 그들의 4大現代化 路線을 推求하는 동안만큼은, 美軍의 韓國駐屯을 願하고 있는 것임.
 - 만일 韓半島에서 戰爭이 再發될 경우, 現在 北京側과 워싱턴側이 相互 友好關係를 摸索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必然的으로 美·中共間의 對決이 不可避할 것이며, 또한 蘇聯이 韓半島戰爭에 強力히 介入될 경우, 베트남의 경우처럼 北韓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을 增大시킬 可能性이 매우 높음.
- 따라서 中共指導者들은 美軍撤收를 큰 問題로 浮刻시키기를 願치 않고 있음.

- 1978年5月, 平壤訪問時 華國鋒은 “美國은 韓國에서 軍隊를 撤收시켜야 한다”는 程度로 原則的인 發言만 했을 뿐 從來 主張하던 “即時 및 完全히”라는 單語를 使用하지 않았고,
- 1980年1月, 브라운 美國防長官의 中共訪問時 中共側은 美軍 撤收問題를 提起하지 않았으며
- 지난 83年11月 下旬에 中共黨 總書記 胡耀邦의 日本訪問時, 國際政治에 關한 關心事를 相互 論議하는 過程에서 “美軍撤收”問題는 전혀 言及되지 않았음.
- 그러나 中·蘇紛爭과 關聯하여 中共의 미묘한 立場때문에 中共은 公式的으로는 北韓의 美軍撤收主張을 항상 支持해 왔음.
- 예를 들면, 지난 83年9月 北韓創建 33周年 紀念 祝賀電文을 通해, 中共黨總書記 胡耀邦과 國家主席 李先念,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長 彭 眞, 國務院總理 趙紫陽등 最高 指導層의 이름으로, “帝國主義와 植民主義”反對, “北韓의 聯邦制”主張支持, “駐韓美軍 撤去”등의 內容을 傳하고 있음.
- 이러한 中共의 北韓支持 發言은 공허한 口號에만 그치는 內容으로서 北韓이 蘇聯쪽으로 기우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努力인 것임.

을 導入하는 소위 “對外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음.

- 이러한 中共의 新經濟政策은 北韓指導層에 테크노크라트의 大舉登場을 刺戟할 可能性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은 金日成의 스탈린主義經濟政策을 鄧小平의 經濟政策으로 代替시킬 可能性이 큼.
- 北韓이 對外貿易과 接觸을 增大시킬 경우, 北韓社會의 對外的 露出이 不可避할 것이고, 黨과 軍의 젊은 官僚들은 對內的으로는 빠른 經濟成長과 對外的으로는 柔軟한 外交政策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脫이데올로기 路線을 取할 可能性도 있음.

다. 金日成 偶像化

- 中共에서의 “脫이데올로기 路線”과 “毛澤東 個人偶像化批判”은 “金日成主義”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 되고 있음.
- 中共의 毛澤東 格下運動은 金日成 個人偶像化에 對한 默示的 批判임. (北韓은 北韓式의 스탈린主義와 毛澤東思想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음.)
- 現在 北韓政治體制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黨幹部들은 주로 스탈린主義者들이고 北韓體制 역시 스탈린主義 體制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北韓은 스탈린 및 毛澤東 格下運動을

마. 韓半島 統一問題

- 中共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는 “外交의수사”를 反復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願하고 있음.
- 現在 中共指導層의 最大關心事는 對外的으로는 “蘇聯霸權主義” 對內的으로는 “4大 現代化”인 바,
- 中共은 蘇聯에게 安保戰略上的 利益을 안겨주거나, 中共의 經濟開發計劃을 沮害하는 어떠한 外部環境的 變化가 隣接한 韓半島上에서 일어나는 것을 願치 않고 있음.
- 따라서 中共은 美國·日本과의 協調下에 或은 美·日의 要求에 소극적으로 應하는 形式으로, 韓半島上의 戰爭再發防止와 南北韓協商 推進을 위해 努力할 것으로 보임.

바. 韓國·中共關係

- 1974年 中共政府가 韓國·中共間 郵便業務開始에 同意한 以來로 香港을 經유한 間接貿易을 비롯한 非政治的인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中共은 東北아시아에서의 經濟強國으로 成長하고 있는 韓國의 經濟發展 모델을 매우 關心있게 觀察하고 있으며, 發展된 韓國의 科學技術과 값싼 商品은 中共의 經濟現代化에 寄與할 수 있고, 安保面에서도 역시 中共은 韓國을 無視할 수 없는

立場임.

○ 그러나 最近들어 漸次 好轉되는 기미가 보이는 韓國·中共의 關係改善 問題는 “北韓”이 가장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 現狀況에서는 中共이 韓國과 接觸을 通해 얻는 利益에 비해 對北韓關係를 損傷시켜 北韓·蘇聯關係가 密着되는 危險 負擔이 너무크기 때문에, 中共과 韓國의 接近은 매우 완만한 速度로 制限的인 範圍內에서 可能할 것임.

韓·中共關係 事件日誌

年 度	內 容
1974	○ 兩國間 郵便 및 電信業務 許容 - 中共居住 韓國人들에게 韓國의 친척들과의 連絡許容 - 韓國出身 海外僑胞에게 中共訪問 許容
1976	○ 韓國漁船(2隻)이 中共領海侵入으로 抑留된 後 送還됨. ○ 11月, 韓國·中共, 東京開催 “太平洋地域 造船會議” 參席

年 度	內 容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政府承認으로 中共居住 韓人老人이 香港경 유 韓國으로 歸國 ○ 6.25 때 戰死한 中共軍人 유해가 판문점 通 해 유엔군에 의해 中共當局에 引渡됨.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月 韓·中 水泳協會代表, 방글라데시 開催 會議에서 앞으로의 회동 可能性에 대해 友好的 協議 7月 韓國·中共間에 民營航空機 韓國領空 飛行許容 問題 合意 ○ 韓·中共 間接貿易 實施 (1~7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은 約 1,330 萬弗 相當의 石炭, 織物 (原料) 등을 輸入 245 萬弗 相當의 織物製品, 化學肥料 등을 輸出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月, 中共外交部, 韓·中貿易說 公式否認 ○ 9月5日, 中共日刊紙, 中共側의 製品을 韓國에 輸出했다고 처음 報道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月, 韓·中共 뉴스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U (아시아放送聯盟)의 決議에 따라

年 度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月, 中共, 民航機 不時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側 最初로 “大韓民國” 公式號稱 使用 - 乘客送還交涉 爲해 中共 政府高位官吏(民航 總局長) 最初로 韓國 入國 ○ 8月24日, 韓國官吏 訪中共 入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開催 “水産養殖 現場實習”에 韓國의 水産振興院 官吏 參加

사. 中共·北韓 經濟關係

- 北韓은 60年代에 無理한 國防費 增額으로 말미암아, 70年代에 들어온 以後 매우 심각한 景氣 沈滯를 맞아, 지금까지 回復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앞으로도 相當期間동안 不確實하고, 어려운 經濟難에 逢着할 것임.
- 北韓이 經濟難을 겪게 된 理由를 具體적으로 보면,
 - 對內的 要因으로서는 경직된 國內 經濟體制, 지나친 軍費支出, “主體”思想에 立脚한 無理한 自立經濟 建設등이며,
 - 對外的 要因으로서는 油價쇼크, 累積된 外債, 中·蘇로부터의 援助減少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 北韓經濟體制的 長期的이고 根本的인 變化
 - 先進工業國家로부터 現代資本 및 技術의 導入
 - 國際社會에서의 信賴度回復등이 不可避하게 要求됨.
- 한편, 中共·北韓間的 經濟代表團 交換 訪問 및 協定體制的 回數가 最近 增加된 現象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中共으로부터 北韓이 經濟援助를 얻기 爲해 腐心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中共은 “4大現代化”路線을 推進하는 過程에 있어서 그 自身이 經濟的으로 많은 課題를 안고 있는 만큼, 北韓을 援助해 줄 만큼의 餘力이 없고,
 - 또한 이처럼 中共이 北韓에 對해 充分한 經濟 및 技術援助를 提供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中·蘇의 北韓 誘引 競爭에 있어서 中共側이 느끼고 있는 커다란 弱點임.
(이때문에, 中共은 北韓의 後繼 世襲制度를 默視裡에 容認해 주고 있는 것임).
- 中共이 北韓의 經濟回復에 必要한 充分한 援助를 提供할 수 없고, 또 北韓이 西方世界의 資本·技術에 接近하지 못하는 限, 尙차 北韓은 심각한 經濟問題 때문에, 共產同盟國들, 특히 蘇聯에게 돌아갈 可能性이 있고, 그렇게 되면, 從前처럼 蘇聯의 影響力下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中共式의 修正路線을 選擇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가. 안드로포프路線

- 안드로포프體制는 反브레즈네프路線을 堅持할 것으로 豫測되는 바, 그 路線의 根幹을 이루는 것은,

첫째, 브레즈네프 偶像 批判(브레즈네프 死亡 以前부터 서서히 始作되었음)

둘째, 브레즈네프 族閥體制 批判

(예를 들면, 브레즈네프의 사위로서 中央委員會 候補委員 兼 內務省 第1次官을 歷任했다가, 안드로포프 登場 以後 무르만스크의 閑職으로 밀려난 유리·츄바노프의 경우)

셋째, 후르시초프路線의 復活(스탈린路線의 格下)

넷째, 브레즈네프의 農業政策 失敗 및 經濟不況에 對한 打開 策 推進

(안드로포프는 헝가리의 經濟發展 모델을 援用할 것임)

등이 對內政策面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 한편, 對外政策側面에 있어서도

첫째, 中共과의 和解摸索 (브레즈네프時代에 비해 보다 和解的 立場임)

둘째, 東歐圈 國家 및 北韓 등의 衛星國家와의 關係改善

셋째, 美·蘇間 戰略武器會談 등 協商스타일의 變化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보다 훨씬더 次元 높은 戰略的 立場임)

등 브레즈네프時代의 對外政策 보다 다소 變化된 가운데 推 進되고 있으며, 이러한 對內外政策들의 基本立場은 蘇聯의 對 韓半島 政策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나. 蘇聯·北韓關係

- 蘇聯의 新權力體制 出帆以後 蘇聯은 疏遠해진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中共·北韓의 密着을 防止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金日成 偶像崇拜와 金正日의 政權世襲(族閥體制), 그리고 北韓이 후르시초프路線을 無視하고, 스탈린主義를 強力하게 標榜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때, 個人 偶像崇拜나 族閥體制를 批判하는 안드로포프體制와는 關係改善이 當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안드로포프體制 역시 過渡期的 執權者에 지나지 않을 可能性이 크고, 앞으로 蘇聯의 實權者는 世代交替가 이루어지는 狀況속에서 政權基盤을 굳혀야 하기 때문에 豫測不許의 狀況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蘇聯政權의 過渡期的 承繼의 期間동안은 蘇聯 자신 이 北韓을 擁護해줄 餘力이 없을뿐 아니라, 北韓 자신도 不透明하고 不確實한 蘇聯의 執權體制 보다는 現在로서는 나아갈 方向이 確實하게 定立된 中共쪽에 密着하는 것이 훨씬 安全하다는 判斷에서 北韓의 中共 接近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다. 蘇聯·韓國關係

- 안드로포프體制는 韓國에 대해 制限된 接近을 할 것임.
 - 1973年 6月 23日 故 朴正熙 大統領이 “共產國家에 對한 門戶開放政策”을 宣言한 以來로 韓·蘇間의 學術 및 文化 交流가 漸次 增加하는 趨勢를 보여주었음.
(지난 82年 10月 蘇聯의 타스通信社 代表 3人의 韓國訪問, 蘇聯邦 現職官史인 文化省 藝術文化財 保存局長의 韓國訪問 등)
- 間接貿易 去來를 비롯한 韓·蘇 經濟關係가 最近 擴大되고 있음.

- 蘇聯은 시베리아地域의 一般 商品供給 不足을 메꾸기 위해 輸送費가 싼 韓國製 輕工業製品에 魅力을 느끼고 있고, 韓國으로부터의 高級技術導入에도 깊은 關心을 갖고 있으며,
- 韓國을 石炭, 木材, 石油輸出의 對象國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韓·蘇 經濟關係는 相互 依存的 關係라 할 수 있을 것임.

4. 對蘇聯 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딜레마

가. 支配主義(膨脹主義)와 主體思想

- 現在 蘇聯은 北韓側이 要求하고 있는 經濟援助와 武器供給, 그리고 世襲體制 認定등을 受諾할 用意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 重要한 理由中의 하나는 蘇聯의 “支配主義”에 대한 北韓의 非難과 완고한 “主體思想” 고집에 따른 蘇聯·北韓間의 불편한 關係때문인 것으로 보임.
- 北韓은 金日成 偶像化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主體思想이 北韓뿐 아니라, 全世界 各 民族에 적합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반면에
- 蘇聯은 “主體”라는 用語를 使用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은연중 “主體思想”을 否認하고 있으며 오히려 蘇聯援助에 대한 北韓의 經濟依存도가 매우 높다는 事實을 가끔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北韓의 “自力更生”의 虛構性을 논박하고 있음.
- 한편, 蘇聯은 蘇聯나름대로의 對北韓 要求事項이 있으며, 이러한 要求事項의 貫徹을 위해 北韓에 대한 壓力을 增大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要求事項들을 보면,
- 蘇聯의 外交政策(支配主義)에 대한 北韓의 반대중지

- 北韓의 “主體思想”이라는 反蘇的 理念的 廢棄
 - 北韓의 對蘇 密着關係 維持
 - 코메콘을 통한 蘇聯 經濟體制에로의 北韓經濟 통합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北韓은 過去에 蘇聯에 대해 많은 疑懼心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北韓의 현지도체제가 蘇聯에 從屬되었던 쓰라린 過去 經驗을 記憶하고 있는 만큼, 蘇聯은 北韓에게 있어서 매우 威脅的인 두려운 存在임 (특히 最近 몇년동안 蘇聯의 아프간 武力侵攻, 폴란드事態以後 蘇聯 軍事力에 의한 北韓侵攻이라는 더욱 두려운 시나리오를 北韓은 想起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金日成은 蘇聯과 너무 緊密한 關係가 招來할지도 모르는 危險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사 北韓이 불가피하게 蘇聯쪽으로 接近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 될지라도 北韓은 “絕對的 蘇聯依存”은 회피할 것임.
- 蘇聯·北韓關係가 最惡의 狀態였던 지난 1963年, 北韓은 蘇聯이 經濟·軍事援助를 北韓의 內政과 經濟計劃에 대한 干涉의 미끼로 사용했다고 非難했으며, 蘇聯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國家들의 自主獨立과 主權을 尊重치 않았다고 攻擊했음 (勞動新聞 1964.9.7日字는 “蘇聯의 援助가 內政干涉과 榨取를 가져왔다”고 非難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동안 北韓이 蘇聯의 아프간 侵攻을 마지못해 支持했던것은, 北韓이 蘇聯의 壓力을 은연 중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蘇聯과의 親善 및 蘇聯의 對北韓 經濟·軍事援助를 重要視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金日成은 지난 79年 아프가니스탄事態가 發生하자 크게 衝擊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平壤을 자주 드나드는 시하 누크가 말했고, 80年10月 第6次 勞動黨 大會에서 金日成이 北韓의 獨立守護能力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金日成은 直接的으로 言及하지는 않았지만, 유사시 蘇聯의 北韓 侵攻可能性을 크게 염려했던 것이 분명함)

나. 經濟援助

- 北韓 政權樹立이래로, 蘇聯은 北韓의 重要的 借款과 技術 및 資本財 供給源이었을뿐 아니라, 가장 重要的 貿易相對國 이었음.
- 蘇聯側의 主張에 의하면, 蘇聯은 그동안 平壤火力發電所, 북창火力發電所를 비롯해, 咸興紡織工場을 建設하는데 積極 支援했을뿐만 아니라, 웅기정유工場, 平壤 디젤기관차 修理工場 등 60여개의 北韓 主要産業施設 建設에 크게 寄與했다고 하며,

- 蘇聯의 도움으로 12個 工場이 建設되고 있거나 現代化 되고 있는 過程에 있으며, 北韓의 북창火力發電所의 大型 터빈製作과 蘇聯製 新형탱크 T64 형도 北韓에 製造를 許可했다고 하고,
- 現在 北韓의 企業들중에서 蘇聯의 資本 및 技術援助에 의 해 세워진 企業의 比率을 分野別로 보면 電力 60%, 石油類製品 42%, 鐵鑛 40%, 壓延鋼 34%, 鋼鐵 30%, 織物 20%로 나타나있어, 現在 推進中인 北韓의 7個年 經濟計劃 역시 蘇聯의 援助가 不可避하게 要請된다는 것임.
- 그러나, 이처럼 蘇聯이 北韓의 모든 主要産業施設과 運用에 모두 관여하다시피 했음에도 北韓側으로부터 宣傳效果를 얻어 내지 못하고 있는것은, 北韓側이 金日成의 소위 “自力更生”에 의한 經濟建設이 이루어진 것처럼 宣傳하고 있기 때문임.
- 蘇聯은 北韓의 深刻한 經濟問題에 대해 過去와는 달리 消極的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蘇聯自身の 國內經濟 問題와 執權 世代交替등의 어려움 때문에. 더구나 北韓의 對蘇聯 負債償還 遲延(7億弗 以上)때문에, 더 이상의 차관공여나 經濟援助를 拒絕하고 있으며, 그대신 過去의 對北韓 經濟支援에 대한 공 치사만 宣傳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軍事援助問題

- 蘇聯의 對北韓 軍事援助는 蘇聯·北韓關係의 核心的 요소인바, 北傀軍은 주로 蘇聯製 武器로 軍事裝備體制를 갖추고 있어서 戰力增強이나 軍現代化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蘇聯製 高性能 武器供給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軍事援助를 中心으로한 北韓·蘇聯關係를 간단히 살펴보면,
 - 후르시초프실각이후, 蘇聯은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中共의 對北韓 影響力을 봉쇄하기 위해, 1967年 250臺 以上の 제트기를 提供하는등,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를 增大했으며,
 - 1968年 1月 프에블로호 事件當時까지 北傀軍은 最新型 탱크, 유도탄적재함, 레이더, 지대공유도탄, 미그 21 戰鬥機등 最新裝備를 蘇聯의 援助를 통하여 갖추게 되었음.
 - 그러나, 1970年代동안, 蘇聯은 미그 23, 미그 25, T 72 탱크 및 最高性能의 對共 戰術體制를 北韓에게는 提供하지 않고, 이집트, 리비아등 中東 紛爭地域에 定期的으로 販賣했는데, 그 이유는 1970年代 北韓의 中共 傾斜와 北韓의 獨自의 南侵敢行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 蘇聯側 立場에서 볼때, 美·日·中の 對蘇 安保協調體制가 強化되는 동아시아 情勢變化에 따라, 당연히 北韓과의 關係改善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北韓·中共이 政治的으로는 密着하고 있으나, 中共으로부터 뚜렷하게 軍事援助를 얻어낼 可能性이 적다고 판단하는 北韓이 韓國의 軍事力 強化에 威脅을 느껴 蘇聯에게 軍事援助를 強力히 要請할 경우, 蘇聯으로서는 北韓에게 高性能 現代武器를 供給해 줄 可能性도 있음.

○ 그러나, 北韓이 中共과의 密着이 繼續되는한, 그리고 北韓에 의한 한반도 紛爭誘發이 예견되는한, 蘇聯은 北韓에게 이렇다할 軍事援助를 再開하지는 않을 것임.

- 最近 蘇聯의 동아시아 安保戰略을 北韓을 據點으로하는 北韓中心 戰略에서 벗어나, 베트남의 坎란灣에 이미 함대기지를 確保해 놓았을뿐만 아니라, 日本北方 에또로후섬 2百km 地點에 있는 新知島 부로튼灣에 攻擊型 잠수함기지를 建設하였는바,

- 이는 蘇聯함정이 더이상 北韓의 港口를 據點으로 하지 않더라도 太平洋, 印度洋으로 進出하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戰略的 對應裝置를 다원화함으로써, 蘇聯에 대한 北韓의 戰略的 價値가 이미 크게 減少되고 있음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음.

라. 蘇聯·韓國關係

- 歴史的으로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를 자세히 살펴보면, 韓國이 自由圈國家(특히 美國)와의 일변도적 外交關係를 고수하는 從來의 立場에서 進一步하여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對外 門戶를 開放하면서 對外關係에 있어서 韓國의 主體的 立場을 強化해 나갈때 韓·蘇關係는 緩和되어가는 傾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韓國政府가 外交路線에 있어서 自主的 立場에 있다고 판단될때, 蘇聯은 韓國에 대해 關係改善의 可能性마저 보여 주었음.
- 그러나 蘇聯이 韓國을 美·日·韓으로 이어지는 太平洋 安保同盟體의 一員으로서만 認識하고, 아직도 主體的 立場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한, 韓·蘇關係 改善의 可能性은 희박해지고, 그 必要性조차 相互 別로 느끼지 않았던 것임.
- 70年代에 들어온 以後, 蘇聯은 韓國에 대한 강경한 從前立場을 다소 緩和해가는 徵候를 보여 주었는바, 특히 1973년 韓國政府가 “非敵對 共產國”과의 外交關係 樹立用意을 發表했을때 蘇聯은 서울과의 接觸網을 형성할 조짐을 보였는데, 以後 韓·蘇間의 接觸狀況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 1971年9月, 蘇聯축구코치가 그가 指導하는 이란팀을 이끌

고 訪韓

- 1973年, 韓國 劇作家가 韓國人으로는 처음으로 蘇聯을 訪問한데 이어서, 數名의 科學者들이 모스크바開催 國際産婦人科協會會議에 參加
- 1973年 9月,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大會에 韓國팀이 招待되어 參加(北韓은 大會 보이코트)
- 1973年 11月, 워싱턴近郊 별장에서 駐美韓國大使와 蘇聯大使가 회동
- 1977年, 韓國은 모스크바開催 역도 및 레스링大會에 參加했고, 政府官吏등 韓國代表團이 유네스코會議에 參席
- 1978年 4月, 大韓航空 707旅客機 蘇聯 무르만스크基地에 不時着, 蘇聯側의 好意로 遲滯없이 乘客送還(當時 朴大統領은 蘇聯政府에 “깊은 感謝”表明)
- 1978年 9月, 蘇聯은 韓國閣僚(신현확 保社部長官)을 알마아타開催 國際保健機構 國際會議에 參席토록 許容(韓國記者團도 同行)했고 韓國女子排球팀이 모스크바 國際排球大會에 參加(이때 蘇聯의 地方新聞 “카자흐 프라우다”는 “大韓民國”이라는 公式號稱 使用), 두명의 韓國 스포츠記者가 모스크바開催 國際스포츠 記者協會 第43次 會議에 參加

- 1979年 8月, 韓國 政治學者(17名), 모스크바開催 國際政治學會 第11次 會議參席
- 1982年 10月, 3名의 塔斯通信社 記者代表團과 蘇 聯邦政府 文化省 藝術文化財 保存局長의 會議參席次 韓國訪問 (蘇聯 高位官吏의 最初 韓國訪問임).
- 또한 韓國, 蘇聯間에는 1972年 이래로 間接的 貿易 去來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1978年 韓國의 對蘇聯 輸出額은 約 100萬弗에 이르렀고, 主要商品은 韓國側이 衣類, 양말등의 衣類製品을 輸出하고, 蘇聯側은 冷凍魚類, 石綿, 木材등을 輸出한 것임.
- 70年代以後 韓國에 대한 蘇聯의 이같은 尤화제스처는 中·蘇關係 變化, 美·日 防衛協力增大, 中共·北韓關係 改善等の 周邊環境 變化의 와중에서 새로운 東北亞 政策展開의 한 過程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特히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좀 더 自主的·主體的 立場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이地域의 主要한 經濟國家로 成長·發展하고 있는데에도 그 原因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임.
- 즉, 韓國·蘇聯關係는 蘇聯이 北韓·中共의 密着을 견제하기 위한 “韓國카드”로 使用하기 위한 目的과
- 韓國과의 關係改善의 戰略的 必要性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北方 3角關係가 미묘한 균형게임을 展開하는한, 한정된 範圍내에서 蘇聯의 “韓國카드”는 繼續 시도될 것이며, 北韓은 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5 . 結 論

가. 週邊情勢의 變化樣相

○ 現在 韓半島와 關聯된 복잡한 週邊의 動向을 간략하게 要約해보면,

- (1) 中共은 對內的으로 實用主義 路線을 追求하는 鄧小平 體制가 完全히 자리를 굳히면서 政權의 세대교체와 社會 開放化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지난 82年 9月初에 開催된 中共黨 第12期 代表大會를 契機로 發表한 “獨立自主 外交論”에 立脚하여, 72年 美國과의 關係正常化 以後 持續시켜온 美·中共 友好關係를 일단 再檢討하여 美·中共關係를 보다 實利的이고 流動적인 視角에서 새로이 定立해 나가면서 美·日과의 關係를 通해 東北亞에 있어서 좀더 影響力있는 發言과 積極的인 姿勢를 보여주고 있으며, 蘇聯과는 안드로포프 新體制 등장 以後의 蘇聯內部 變化에 適切하게 反應하면서, 中·蘇間의 不必要한 紛爭을 迴避하고, 制限的이기는 하나 中·蘇 和解를 摸索해 나가고 있음. 北韓과는 표면상 密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北韓의 對蘇 傾斜를 일단 예방하되, 韓國과도 적대적 立場을 고수하려고 하지는 않고 韓半島에서 의 紛爭 재발을 원치않고 있음.

(2) 蘇聯은 안드로포프 體制 등장 이후 아직도 政權의 基盤이 確立되지 못한 가운데, 政權交替의 과도기에 놓여있으며, 조만간 안드로포프 體制가 사라지고 現在 權力核心의 제 2 선에 있는 소장그룹이 政權을 물려받을 可能性이 높음.

따라서 蘇聯은 現在 權力基盤의 定立과 政權의 세대교체라는 두가지 目標을 동시에 推進해야 하기 때문에 이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集團指導 體制의 출현과 軍部指導者 그룹의 影響力 強化 現象인데, 結局은 軍部の 支持를 獲得한 소장그룹의 後繼者가 서서히 權力 基盤을 構築해 나가면서 새로운 政治權力 개편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蘇聯으로서의 政權交替의 과도기 동안 인접 주변국으로부터의 緊張造成은 원하는 바가 아니나, 새로운 執權勢力이 軍部勢力의 支持를 얻어야 할 必要가 있는 동안만큼은 對美 戰略的 強硬路線을 취할 것으로 보임. 또한 蘇聯은 政權交替 過渡期 동안 그리고 中共은 實用主義 路線에 따른 經濟建設 期間동안 相互間의 緊張造成이 不必要하기 때문에 韓半島 周邊의 북방 두 강대국인 中·蘇는 共同的으로 計算된 平和指向的 立場을 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中·蘇 紛爭은 당분간 격화되지는 않을 것임.

(3) 美國은 蘇聯의 政權交替 過程을 예의 주시하면서, 對蘇 “힘의 優位” 確保를 爲한 중전의 安保·軍事戰略을 強力하게 推

進할 것이며,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中共과 蘇聯의 확대가 예상되는 限, 不可避하게 日本과의 안보유대를 強化해 나갈 것이며, 따라서 韓·美·日 安保協調 體制 強化에 더욱 比重을 둘 것임.

- (4) 日本은 美國의 太平洋 安保 協助要求에 適切히 應하면서, 有事時 蘇聯 太平洋 함대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資源輸送 海上루트를 效率的으로 保護하기 위한 自衛力 增強을 서서히 꾀하되, 한편으로는 蘇聯의 政權變化 趨勢를 예의 觀察하면서 政治的인 對蘇 接近을 시도하고 韓半島에 대해서는 중전의 政策을 고수해나갈 것으로 보임.

나. 北韓의 對中·蘇關係 展望

- 이러한 周邊情勢下에서 結局 北韓이 中·蘇 두 國家中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종전처럼 양다리 外交를 均衡있게 展開해 나갈 것인가의 問題는 結局 北韓 自身の 政治的 狀況과 그에 따른 選擇의 問題로 귀결됨.
- 中·蘇紛爭이 中共과 蘇聯사이에서 능란한 책략을 通해 國익을 增進시킬 수 있는 기회를 北韓에게 提供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紛爭이 격렬하고 中·蘇의 對아시아 勢力強化 競爭이 繼續되는한, 北韓은 中·蘇로부터 어느 한쪽을 選擇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보다 強하게 壓力을 받을 것임.

- 그러나 北韓 政權이 中·蘇중에서 어느 하나를 選擇하게 될 경우, 어느쪽을 選擇하든 關係없이 높은 댓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될것임.
- 近來 北韓의 對中·蘇 關係를 간략히 살펴보면,
 - 1970年代에는 北韓이 中共쪽으로 기울었고
 - 1978-1980년에는 中共의 實用主義 政策과 蘇聯의 對北韓 宥和 努力 때문에 다소 均衡化된 關係를 維持했으며
 - 1981년에 들어와서는, 中·蘇·北韓의 三角關係에 새로운 關係形成이 始作되어, 中共·北韓이 보다 密接하게 關係를 維持하고 있음.
- 最近 中共·北韓간의 最高指導者 相互訪問 등 政治的 交流의 增大 現象은 양자關係를 보다 緊密化 하고있는 分명한 징후이며,
 - 中共은 캄보디아,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등 隣接國들이 이미 親蘇化된 狀況에서 北韓만은 自己 勢力圈안에 묶어 두어야 할 絶對的 必要性이 있고,
 - 北韓은 政權後繼 問題, 經濟問題, 對外關係 問題 등 懸案문 제들의 타개를 위해서는 당분간 政治權力의 향방이 不確實 하고 항상 두려운 存在로 느껴지는 蘇聯側 보다는 이미 變化의 方向이 정착된 確實한 政權인 中共의 鄧小平 및 그

後繼體制에게 接近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中共·北韓關係는 解決해야 할 複雜한 問題들이 가로 놓여 있는바,
 - 韓半島 統一問題, 韓半島에서의 戰爭,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役割, 中共의 對美·日關係 維持 등의 問題에 대해 北韓과 中共이 서로 다른 이해關係를 갖고 있으며,
 - 中共이 實用主義 路線 즉, 修正主義 路線을 推進함으로써 北韓의 現 路線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過去에는 兩國이 類似한 世界觀과 經濟開發 意志, 그리고 美國에 對한 共通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現在 中共의 급변하는 經濟 및 社會政策, 毛澤東 이상비판, 새로운 世界觀 등에 北韓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는 分明치 않음
- 蘇聯이 그들의 아시아 戰略을 北韓을 中心으로하는 일원적 戰略方案에서 탈피하여 戰略據點을 보다 다원화해가는 趨勢를 보이는 한, 從前의 北韓地域에 對한 戰略的 重要性이 減少될 것은 分明하며, 따라서 蘇聯의 北韓에 대한 지지나 支援이 당분간 增加하리라 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새로운 蘇聯政權이 確固한 基盤을 確保할 때까지는 당분간 北韓에 對한 支援을 유보시킬 可能性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中共·北韓의 完全密

着으로 인한 對蘇聯 위협 만큼은 철저히 견제하고자 努力할 것임.

- 中共 또한 接近해 오는 北韓의 消極的인 姿勢로나마 일단 받아들여지, 다만, “北韓카드”로서의 活用 價値와 北韓의 親蘇化를 防止하는 線에서 制限된 關係만을 維持할 것으로 보임.
- 結局 北韓은 中·蘇 國家中 어느쪽도 確固하게 自身の 代父가 될수는 없다는 現實을 認識하고 폐쇄된 政策으로 인한 國際社會에서의 고립을 타개하고 生存의 方向을 찾기 위해서는 周邊으로부터 加증되어오는 “交叉承認”의 方式을 통한 “均衡속에서의 共存 論理”를 考慮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것은 勿論 金正日 後繼體制의 성격여하에 따라 左右될 것임)
- 北韓은 “交叉承認”方案을 “연방제”의 論理속에서 용해시켜 合理化 할 수 있는 方法을 구상할지도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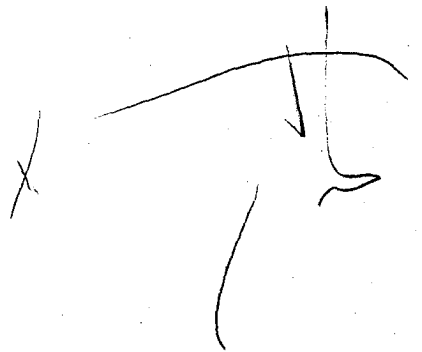
다. 對處方案

- 統一問題와 關聯하여 韓國이 취할 수 있는 對外路線은 從前보다 훨씬 더 自主的인 選擇을 할 수 있는 狀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짐.
- 作今の 周邊情勢 變化를 淸分 活用하여 韓國은 지금까지의

消極的 對外政策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먼저 中·蘇와의 關係를 호전시켜 對中·蘇 經濟 및 文化交流를 통한 相互理解의 폭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임.

- 韓國은 中·蘇와의 經濟協力 等を 통하여 相互理解를 일단 蓄積시킨 다음, 韓·蘇 및 韓·中共關係 改善을 서서히 推進해 나가면서, 美·日의 對北韓 交叉接觸 努力과 中·蘇의 88 서울 올림픽 參加 可能性 시사등 작금의 情勢變化를 토대로 하여 南北韓 交叉承認의 方向으로 誘導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韓國側이 中·蘇와 등거리적 關係改善의 方向으로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 考慮해야 할 重要한 변수는, 韓國이 自主的 立場에 있음을 分明히 이해시키고, 中·蘇의 國家利益을 決定的으로 저해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먼저 認識시켜야 한다는 것임.

X

A collection of handwritten marks including a small 'X' on the left, a horizontal line extending to the right, a vertical line intersecting it, and several other curved and straight lines below.